프랑크 자누는 아프리카를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시청자까지 오도하는가

Eliakim M. Kambale

FF-0002 · v1 · ko · 2026-11-18

번역 원문 en v1

https://contributions-ledger.org/freeforms/ff-0002/v1/ko/

프랑크 자누가 즐겨 쓰는 문제의 논리

프랑크 자누는 베냉에서 태어난 미국의 평론가다. Zanu Project Rethink라는 채널을 진행하며 아프리카의 발전, 문화, 식민주의, 인종 문제 등을 다룬다. 그가 자주 꺼내는 논리가 있다. 아프리카 언어로 'maintenance', 즉 유지·보수를 뭐라고 하는지 출연자에게 묻는 것이다. 자신이 받아들일 만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언어에는 해당 단어가 없고 따라서 그 문화에는 개념도 없다고 결론 내린다. 그리고 그 부재가 아프리카의 발전 문제를 설명하는 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이 주장은 아프리카 학생 두 명과 나눈 대화와 닉 프레이타스와의 인터뷰에도 나온다. 이 글은 그 결론들을 차례로 짚어 보며 논리가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살펴본다.

자누가 직접 이 주장을 펼치는 장면: 9:40–11:00

오류 1: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

프랑크가 출연자에게 자기 언어로 유지·보수를 뭐라고 하는지 물을 때, 대답과 결론 사이에는 여러 전제가 끼어 있다. 첫 번째는 단어가 있다면 출연자도 반드시 알 것이라는 전제다. 그가 모르면 단어도 없다는 것이다. 이미 이 지점부터 논리가 잘못됐다. 어떤 단어를 모른다고 인정하는 대답은 그 순간 그 사람이 그 단어를 모른다는 사실만 보여 준다. 그 언어에 어떤 단어가 있고 없는지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전형적인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 라틴어로 argumentum ad ignorantiam이다. 누군가가 모른다는 사실을,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삼는 것이다.

출연자의 대답에는 여러 설명이 가능하다. 모국어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식민 지배국의 언어로 교육받아 전문 용어도 주로 그 언어로 배웠을 수 있다. 자신이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직업에서 쓰는 용어일 수도 있고, 그저 잠시 잊었을 수도 있다. 자누의 질문으로는 이런 가능성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는 그 대답에서 오직 하나의 결론만 나오는 것처럼 다룬다.

물론 그 언어의 현재 용법에 정확히 대응하는 말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 해도 오늘날의 어휘가 그 말은 과거에도 없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언어는 변한다. 말이 새로 생기고, 뜻이 바뀌고, 쓰이지 않게 되며, 다른 언어에서 들어오기도 한다. 어떤 기술이나 산업이 쇠퇴하면 거기서 쓰이던 전문 용어도 사라질 수 있다. 세대 사이의 지식 전승이 끊겼다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지금 보이지 않는 단어를 근거로 그 언어 사용자들이 과거에 무엇을 알았는지 주장하려

면, 먼저 언어의 역사를 조사해야 한다.

노예제와 식민주의는 그런 상실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공동체에서 강제로 끌려간 장인은 기술을 미처 전하지 못했을 수 있다. 강제 이주로 도제와 스승이 헤어졌을 수도 있다. 식민지 경제의 변화와 수입 공산품과의 경쟁이 수공업을 지탱하던 생계를 위태롭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 자체가 쇠퇴하면 전문 어휘를 쓰고 가르칠 기회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그 결과 다음 세대는 한때 자기 공동체에 속했던 기술도, 그 기술을 가리키는 말도 물려받지 못했을 수 있다.

교육의 변화는 그 단절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었다. 가족과 도제 관계를 통해 배우는 기술은 배우는 사람과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지속적인 접촉에 의존한다. 식민지 학교가 그런 배움의 방식을 대체하거나 낮게 평가한 곳에서는 지식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길을 잃었을 수 있다. 새로운 학교는 지역의 기술도, 그에 딸린 어휘도 가르치지 않았을 수 있다. 오히려 유럽 언어로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유창하게 하면서 자기 언어로는 이름을 대지 못하는 사람을 길러 냈을 수도 있다. 그 어려움은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무엇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지를 반영할 수 있다.

자누의 질문은 이런 역사를 살피지 않는다. 지식 전승이 끊겼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나고도, 애초에 전할 것이 없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인다.

오류 2: 언어 결정론을 당연하게 여긴다

어떤 언어에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다음 단계의 추론은 여전히 성립하지 않는다. 자누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이 개념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단어와 개념은 다르다. 하나의 생각을 구절이나 설명, 또는 더 구체적인 여러 용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영어가 'maintenance'라는 말로 묶는 것을 다른 언어에서는 도구를 손질하기, 건물을 돌보기, 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유지하기처럼 나누어 표현할 수 있다. 그 전체를 아우르는 한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행동이나 목적까지 모른다는 뜻은 아니다.

이 추론은 강한 형태의 언어 결정론에 기대고 있다. 사람이 가진 어휘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정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대화 자체가 그 전제를 의심할 이유를 보여 준다. 출연자가 '돌보다' 같은 표현을 내놓는다면, 이미 아는 말을 이용해 그 개념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자누는 그 표현이 자신이 의도한 뜻을 정확히 담는지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과, 상대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증명하는 것은 별개다. 예방 차원의 관리, 보존, 수리를 상대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누는 그 대신 번역에 관한 질문이 이미 사고에 관한 문제까지 해결한 것처럼 취급한다.

사람을 창밖으로 내던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defenestration을 생각해 보자. 그 중국어 표준어 번역은 把……抛出窗外로, 말 그대로 '……을 창밖으로 던지다'라는 뜻이다. 하나의 전용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로 행동을 설명한다. 비슷한 구절은 아랍어와 힌디어에서도 확인되며, 타갈로그어에서는 동사 defenestrate를 구절로 옮긴다. 그 행위만을 위한 단어가 없어도 사람은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실제로 저지를 수도 있다. 이 언어의 사용자들이 구절을 통해 사람을 창밖으로 던지는 일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 언어의 사용자들에게는 왜 유지·보수를 이해하는 데 꼭 단어 하나가 있어야 할까?

오류 3: 성급한 일반화

설령 자누가 특정 언어에 그 단어도 개념도 없음을 증명했다 해도, 그 결론을 대륙 전체로 넓혀도 되는 이유는 따로 설명해야 한다. 그의 출연자들이 아프리카의 모든 언어, 공동체, 직업과 전통을 대표할 수는 없다. 이것이 성급한 일반화다. 결론의 범위가 근거가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몇 사람에게 질문했다고 해서 그 대답이 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발견이 되지는 않는다.

오류 4: 근거 없는 인과관계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도 뒷받침되지 않는다. 단어가 없다는 사실과 유지·보수가 부실하다는 사실이 모두 확인됐다고 해도,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휘가 실천을 형성하는가, 실천이 어휘를 형성하는가? 아니면 둘 다 다른 사정의 영향을 받는가? 자누에게는 이 가능성들을 구별할 증거가 필요하다. 그의 질문은 그런 증거를 주지 않지만, 그 대답은 발전 문제를 설명하는 역할까지 떠맡는다.

유지·보수가 무엇인지 아는 것,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꾸준히 실행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어떤 공동체는 예방적 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하면서도, 이를 안정적으로 실천할 돈과 장비, 훈련된 인력이나 제도적 여건이 부족할 수 있다. 관리 소홀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해도 개념을 모른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자누는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와 실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단어를 묻는 질문만으로는 그 구별을 할 수 없다.

오류 5: 앞의 주장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결론

앞선 주장이 전부 사실이더라도, 거기서 아프리카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지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지식을 배우고 실천을 바꾸며, 그 변화를 지속시킬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언어도 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어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 개념이 없다'에서 '이 사회들은 발전할 수 없다'로 뛰어넘는 것은 non sequitur다. 라틴어로 앞의 내용에서 그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결론을 정당화하려면, 자누는 왜 그가 말하는 결핍이 앞으로도 결코 극복될 수 없는지 보여 줘야 한다. 단어 하나를 묻는 질문은 그런 사실까지 입증하지 않는다.

히브리어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부활한 과정은 언어가 새로운 필요에 맞추어 어휘를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움직임은 이스라엘 건국보다 수십 년 앞서 시작됐다. 히브리어는 종교와 문학, 학술 영역에서 계속 사용됐지만, 일상생활의 언어가 되려면 당시의 활동을 표현할 어휘가 필요했다. 교사와 언어위원회는 옛말을 되살리고, 기존 단어에 새로운 뜻을 부여하고, 용어를 만들고, 다른 언어에서 말을 빌려 왔다. 수학과 건설, 목공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용어를 마련했다. 어휘가 부족하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어떤 언어에 있다고 가정한 공백이, 그 사용자들은 영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맺으며

프랑크는 이런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시청자를 계속 오도하는 걸까?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추론에도 일관된 논리가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권위 있어 보이는 모습이 신뢰에 호소하는 에토스를 제공한다. 아프리카의 과거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감정에 호소하는 파토스를 제공한다. 이어지는 결론들은 이성에 호소하는 로고스가 있는 듯한 외양을 만든다.

비슷한 지름길은 감옥에 있는 여성이 적다는 사실을 여성이 덜 폭력적이거나 더 착하다는 증거로 바꿔 버린다. 여성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고의로 허위 혐의를 제기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은 놓친다. 흑인 거주 지역의 폭력을 흑인의 지능지수(IQ)가 낮다는 주장으로 바꾸고, 스포츠에서의 성공을 유전적으로 육체노동에만 적합하다는 주장으로 바꾼다. 또는 수학과 공학 분야에서 아시아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타고난 인종적 우월성의 증거로 삼는다. 어느 경우든 결론은 관찰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복잡한 설명을 이해하려면 노력이 든다. 누군가가 마침내 모든 것을 '말이 되게' 설명해 주면, 그 안도감 때문에 질문을 멈추고 설명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이야기가 앞뒤가 맞는 듯하고 내가 이미 품었던 의심까지 확인해 주면, 실제로 증명된 것은 얼마나 적은지 놓치기 쉽다.

인용

Eliakim M. Kambale. (2026-11-18). 프랑크 자누는 아프리카를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시청자까지 오도하는가. Freeforms, FF-0002, 버전 1 (ko). https://contributions-ledger.org/freeforms/ff-0002/v1/ko/